

“힘든 때일수록 미래 준비... 단단한 새 안전망 짜야”

재계총수, 코로나19 극복 메시지

재계 총수들이 코로나19 사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또다시 혁신 고삐를 죄고 나섰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수원에 있는 삼성 종합기술원을 방문했다.

이 부회장은 신기술 연구개발 현황을 보고 받고 차세대 미래기술 전략을 점검했다. 지난해 설립한 미세면지 연구소의 추진 전략도 살폈다. 김기남 삼성전자 DS부문 부회장, 황성우 삼성종합기술원장 사장, 강호규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장, 광진오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소장 등이 함께했다.

이러한 간담회를 통해서 ▲차세대 AI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양자 컴퓨팅 기술 ▲미래 보안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전지 등의 혁신 소재 등 선행 기술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미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국민의 성원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혁신이다. 한계에 부딪혔다 생각될 때 다시 한번 힘을 내 벽을 넘자”고 말했다.

삼성종합기술원은 미래 준비를 위한 기초 연구와 핵심 원천기술 선행 개발을 위해 1987년 개관했다. 17개 연구실에서 1200여명 연구원이 차세대 기술 연구를 진행 중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새로운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코로나 19 사태 심각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다.

최 회장은 지난 24일 화상회의로 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국민성원 보답할 길 ‘혁신’ 한계마다 힘내 벽 넘어야

린수펙스추구협의회에 참석했다. 최태원 수석부회장과 조대식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비롯해 장동현 SK(株) 사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유정준 SK E&S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등 전략위원회 소속 CEO들이 동석했다.

수펙스추구협의회는 SK그룹 고유의 경영 협의 기구다. 최 회장은 평소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날 회의에만은 후반부에 참가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SK가 짜놓은 안전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잘 버티보자”는 식의 태도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씨줄과 날줄로 안전망을 짜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

우리에겐 위기극복 DNA 있어 오늘의 시련, 성장 계기될 것

기업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소외된 조직이나 개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를 앞으로도 재발 가능한 큰 위기라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계사들이 기존 관행과 시스템 등을 원점에서 냉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도 주문했다.

SK가 보유한 인프라와 자원을 고객과 비즈니스 파트너뿐 아니라 사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실행에 옮기자는 의미다.

아울러 최 회장은 각사가 위기를 돌파할 생존 조건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 어려움이 가속화되는 만큼, 각사가 스스로 생존을 위한 자원과 역량을 확보하고 투자자들에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얻는데 힘써야 한

신동빈 롯데 회장



“

코로나19 진정된 이후가 중요 효과적 전략으로 지속성장을

다고 전했다.

위기 속에서도 소임을 다하는 구성원들에 감사 인사도 전달했다. 특히 업무 특성상 현장을 지켜야 하는 구성원을 지목하며, SK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격려했다. SK그룹은 일찌감치 재택근무를 확대했지만, SK에너지와 SK하이닉스 등 현장 업종은 예외로 했었다.

재택근무를 체계적인 업무 시스템으로 정착시켜달라는 부탁도 잊지 않았다. 스스로 한 달 넘게 재택근무를 하면서 많은 점을 느꼈다며, 워킹맘을 예로 들며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데이터 축적 등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희망적인 메시지도 전달했다. “우리에겐 수 많은 위기를 극복해 온 DNA

가 있는 만큼 희망과 패기를 갖고 맞선다면 오늘의 시련은 또다른 성장과 성숙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말이다.

앞서 최 회장은 23일 오후 화상을 통해 ‘경영현안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도 했다. 이날 최 회장과 참가 임원들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점검하고 업종별·관계사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내다보고 사업 전략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24일 화상회의로 임원진을 소집한 비상경영회의를 통해서다.

신 회장은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룹 계열사들이 국내외 상황을 지속해서 체크하고 사업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금도 위기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가 더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비즈니스 전략을 효과적으로 변화시켜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직원들 배려도 잊지 않았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말이다.

앞서 롯데그룹은 코로나19 사태가 2~3분기 미칠 영향력을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그룹 경영 계획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미래전략연구소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장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재무 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전 계열사에 안내하고 회사별로 상황을 점검 중이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건설사 해외수주 절벽... 신규사업 모색

이달 수주 계약액 절반이상 줄어 실내장식·필름사업부문 등 신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해외 수주 실적에 타격을 입은 국내 건설업계가 신규사업 확대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해외사업의 경우 약 180개 국가가 한국발 입국자를 제한하면서 직원들의 발이 묶였다. 프로젝트별로 직원을 교대해야 하거나 새 직원을 투입하려는 등 모든 조치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

2일 해외건설협회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 국내 건설사의 수주 계약액은 올해 1월 56억4603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월 수주액인 11억6363만 달러보다 385%나 급증했다. 올 2월에도 해외 수주 계약액은 37억2232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동월의 24억8304만 달러보다 50%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3월부터 수주 계약이 급감하고 있다. 이번 달 1일부터 24일까지의 수주 계약액은 3억808만달러로 지난 달 동기(7억8767만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건설사들의 해외수주 비중이 높은 아시아 지역과 중동 지역의 수주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한 것이



대림산업 사옥 전경. /대림산업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주주총회를 앞두고 신규사업에 골몰하는 상황이다. GS건설은 오는 27일 주총에서 신규 사업 진출을 목적으로 정관 변경안을 올렸다.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조립식 욕실 및 욕실제품의 제조, 판매 및 보수 유지관리업 등을 정관에 신설한다.

대림산업은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화사업부에 속해있던 필름 사업부문을 물적분할(준속회사가 신설 회사를 100% 자회사로 거느리게 되는 구조)해 독립시키는 방안을 27일 주총에 올릴 예정이다. /정연우 기자 yw964@

정세균 “소상공인, 금융권의 우산 필요한 때”

(국무총리)

코로나19 극복에 금융권 간담회

“IMF때 국민들이 금융권 도와” 정부, 금융 안정화에 100조 투입

정부가 금융지원 방안을 속도감있게 실행하기 위해 금융권에 협조를 구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全) 금융권 간담회’에 참석해 “지금이야말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중소기업들에 대해 금융권이 펼쳐주는 우산이 필요한 때”라면서 금융권의 지원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우 어려운 시점”이라면서 “실물경제가 금융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 총리는 “과거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맞이했을 때 국민들께서 금융을 돕기 위해 노력했다”며 “과거에 금융권이 어려울 때 국민들이 힘이 되어줬듯이 대다수 국민들이 어려울 때에 금융권이 국민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全) 금융권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하는 발언을 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전일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10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는 각각 20조원, 10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증안펀드에 출자한 금융사들의 건전성 비율 완화 수준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일 증안펀드 관계기관 회의에서 출자 금융회사들이 건전성비율 완화 수준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해 적극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증안펀드 출자에 따른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의 하락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또 “일부 출자 금융회사들이 단독펀드보다는 통합펀드 방식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희망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자사는 단독펀드와 통합펀드 중 원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 은행은 주로 단독펀드 방식을 원하고 증권사와 보험사는 통합펀드 방식을 선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상미 기자 smahn1@